

치솟는 먹거리 물가에 먹는 것도 줄었다

식료품 소비지출 9년만에 최저
2분기 실질 소비지출 1.0% 감소
식음료·음료 물가 상승률 2.9%

긴 폭염과 역대급 폭우 등 이상기후 여파로 농수산·식료품부터 외식물가까지 모두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먹거리 소비지출액이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구 식료품·비주류음료 명목 소비지출은 월 평균 4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하지만 2분기 중 상승한 물가를 고려하면 실질 소비지출은 1.0% 감소한 34만 1000원에 그쳤다. 가구 먹거리 지출액은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소비 규모는 감소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올 2분기 식료품·음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를 기록했다.

먹거리 실질 소비지출은 물가 상승률이 3.5% 수준에 달했던 2023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한 뒤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올 2분기 들어 농수산물물 중심으로 각종 먹거리, 가공식품까지 고물가가 지속되자 1분기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2020년 1분기부터 5년 이상 전제 물가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물가 상승분이 누적되면서 올 2분기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지수는 125.33으로 전제 물가지수(116.32)보다 9.01 높았다.

또 가공식품은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대폭 상승한 점이 수입 원자재 등에 반영되면서 식품기업들도 출고가를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서민의 필수식품인 라면은 5~7월 3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과자·빙과류 및 당류 물가

(5.0%), 커피·차 및 코코아(13.5%), 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 및 채소주스(3.4%) 등도 큰 상승폭을 보였다.

7~8월에는 폭염 및 폭우 등으로 감자 등 대체 식품과 배추 등 채소류, 수박 등 여름철 제철 과일도 모두 두 자릿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이 선풍 지갑을 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올 2분기 먹거리 실질 지출액은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집계 기준이 일부 다르긴 하지만, 2016년 2분기 33만원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은 지출액이다.

소비자들이 소비 대체품을 찾지 않고, 지출 자체를 줄였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통상적으로 식료품 소비가 감소하면 외식비 지출액이 증가하지만, 올 2분기 가구 식사비 실질지출액은 35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임진달(왼쪽) HS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가 지난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경일 80주년, 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부 호(Vu Ho) 주한 베트남 대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HS효성 제공>

HS효성첨단소재 베트남 국경일 80주년 참석 경제협력 방안·탄소섬유 사업 투자 계획 논의

2007년 진출 후 46억 달러 투자

HS효성첨단소재가 베트남 국경일 80주년 행사에 참여해 양국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1일 HS효성그룹에 따르면 임진달 HS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경일 80주년, 한-베 수교 3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임 대표는 이날 부 호(Vu Ho) 주한 베트남 대사를 만나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탄소섬유 등 사업 투자 계획을 의논했다.

베트남은 HS효성의 대표적인 해외 진출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시장으로, HS효성은 2007

년 베트남 첫 진출 후 현재까지 46억 달러를 투자하고 1만명 이상의 현지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HS효성은 특히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 바리아붕따우성과 중부 평남성에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고성능 타이어코드와 테크니컬 안, 탄소섬유 등 첨단 소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간 35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 중이다.

임 대표는 “베트남은 HS효성의 글로벌 공급망과 미래 성장 전략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치플레 치즈 케이크 맛 보세요” 광주신세계 직원이 분관 지하 1층 치플레 팝업에서 다양한 치즈 케이크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1일부터 서울 연남동에서 시작해 대전신세계 등 전국 주요 백화점에 입점해 이름을 알린 ‘치플레’ 팝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 메뉴로는 치플레, 다크 초콜릿을 활용한 쇼콜레, 우지 말차가 들어간 딥포레, 결면을 구운 브릴레 등이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한은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한국 내년 성장률 0.16%P 낮출 것”

경제심리·주가지수 등 모두 하락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폭 상승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미국의 관세정책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0.13%포인트(p), 0.16%p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일 한국은행(한은)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TPU)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앞서 2018년 하반기 들어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무역갈등이 극심해졌던 당시

와 비교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 뒤 TPU는 4배 이상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진철 한은 경제모형실 차장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의 관세 인상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은 과정에서 실제 관세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기업 등의 의사결정에 무역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쳐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한은의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뚜렷했다. 분석 결과 불확실성 충격이 발생하면 글로벌 경기선행지수, 국내 경제심리지수, 주가지수, 국제수익률 등이 모두 하락했으며, 원·달러 환율만 상승했다. 불

확실성 충격 시 국내 및 글로벌 주요 경기 지표들이 모두 부정적인 방향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어 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을 통한 정량 분석에서도 불확실성 충격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13%p, 내년에는 0.16%p 내릴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들은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를 미루고, 가계도 관세 인상과 경기 둔화를 우려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주 차장은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미국과 긴밀한 통상 협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투자와 수출시장 진출 위축을 막기 위한 무역금융 제공, 투자여건 개선 등의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134만가구 대상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소득의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 비서) 또는 우

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나 자동응답 전화(1544-9944)로 신청할 수 있다.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 하면 2년간 신청요건이 충족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자동 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이번달부터 처음 적용돼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박진표 기자 lucky@



지난 1월23일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소비·착한금융·착한일자리)' 광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자금 100억 추가

총 400억 연 2.12% 저리 융자

광주시가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구조고도화자금 100억 원을 추가로 풀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 소비·착한 금융·착한 일자리)’의 일환으로 총 400억원을 지역 중소기업에 융자로 제공한다.

상반기 300억원 지원에 이어 이번엔 100억원을 추가한 것으로, 연 2.12%의 낮은 금리를 연말까지 적용한다.

이번 자금은 운전자금(원자재 구매, 급여 지급 등 영업 활동 유지에 소요되는 자금) 편중을 바로잡아 설비투자를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업 전업종 30% 이상인 제조업체와 제조 관련 서비스업체다.

시설자금은 기업당 최대 10억원(3년 거치 뒤 5년 균등상환), 운전자금은 최대 3억원(1년 거치 뒤 2년 균등상환)까지 가능하다.

프리·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

전보건우수기업 등 광주시 인증 우대기업은 최대 10% 범위 내에서 한도를 더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시장 대비 낮은 연 2.12%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0.5%p를 추가로 내려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중복 수요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금은 기존 대출 상환기간이 끝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고, 공장·사무소 등 고정자산 투자에 쓰는 시설자금 비중을 높여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유도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42.93 (-43.08)
↓ 코스닥	785.00 (-11.91)
↑ 금리 (국고채 3년)	2.435 (+0.009)
↑ 환율 (US D)	13938.70 (+3.60) 〈오후 4시 47분 기준〉



GICON, ‘광주 에이스페어’ 글로벌게임센터 공동관 운영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지난 28~31일 개최된 ‘2025 광주 에이스페어’에서 광주글로벌게임센터 공동관을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팀 다다’, ‘썬랩게임즈’, ‘썬스튜디오브리즈’, ‘썬위치스’ 등 광주의 게임기업 4개사와 GICON 인디게임 개발자에 지원한 ‘인디스타즈 10기’ 2개 팀이 참여해 지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선보였다.

〈사진〉

이들은 PC, 모바일, XR(확장 현실) 융합 콘텐츠 등을 활용한 다양한 게임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아케이드 게임 체험 공간, 이벤트 경험 행사 등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이번 공동관 운영은 지역 게임 개발자들이 직접 만든 콘텐츠를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게임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